

대통령 인기 힘입어 공천이 곧 당선?...치열한 경선전

21대 총선 관전 포인트

민주당 일당독주 이뤄질까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 것으로 보여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선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압승을 해야 수도권과 충청·강원·영남권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총선 결과의 지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조전 성격도 갖는 만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한 판 대결도 예상되며, 20대 대선에서의 호남 표심을 미리 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광주·전남, '민주당 공천=당선' 가능할까?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광주·전남 18곳과 합평군수 재선거 등에 출마할 입지자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총선 입지자들의 출마선언과 출마 기 념회 공작 사보 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안정적인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당내 경선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현역 송갑석 국회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구갑 선거구를 제외하고 7개

출마선언·출판기념회 잇따라 지역구마다 2명 이상씩 출사표 야당 현역의원과 한판승부 예상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민주당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거나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벌써 치열한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앞서 마감된 민주당 관리당원 모집 과정에 불·탈법이 극성이었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산갑 지역구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당내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경선에서 50%가 반영되는 관리당원 표심이 사실상 경선 결과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 대 현역 야당 의원과의 '한판 대결' = 민주당의 광우·전남 압승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수 년 동안 지역구를 다져온 야당 현역 국회의원들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표발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관리당원 모집 과정에서부터 불·탈법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일부 후보군들은 청와대 근무 경력만을 내세우는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에 혈안이 돼 '민주당 공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근무 경력을 앞세운 일부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이 지역에서 여전히 식지 않아 내년 총선에서도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운 민주당 당내 경선 입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대통령의 옷자



'선거법·검찰개혁법'의 '4+1협상' 난항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락'만 붙잡고 있는 동안, 현역 야당 의원들은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선거구 야당 현역 의원들의 지지층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르면 금주 총리인선...정세균이나 이낙연 유임이나

한중일 정상회의 전 결단 예상 총선 출마 준비 정세균 의사 변수 총리 외 개각은 최소화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내년 2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방향 역시 이번 주에 가닥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16일 본회의 상정 → 처리 실패 시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19일 본회의 표결'이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이전에 총리 인선 문제를 매듭지

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 시간표를 고려하면 발표를 오래 미뤄둘 이유가 없다. 대통령도 곧 결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하기로 결정할 경우 현재로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정 전 의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할 만큼 민주당 내 '경계동'으로 꼽히고,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회와의 협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정 전 의장 본인의 의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총리설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정 전 의장이 내년 총선에서 중로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여기에 국회 일부에서 '입법부의 수장'을 역임한 정 전 의장이 총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입법부 수장을 했던 정 전 의장을 행정부의 2인자로 삼겠다니, 민주법치주의의 핵심인 3권분립의 정신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며 "유신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발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인준투표 때 대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변수를 최소화하고자 '이낙연 유임' 카드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과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및 '하명수사' 의혹이 겹치며 여야 간 대립이 워낙 첨예한 상황에서 굳이 '청문정국'을 만들어 위험부담을 짊어지기보다는 안정적인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한편 총리 이외의 다른 장관들에 대한 개각은 최소한에 그칠 전망이다. 높아진 검증문턱 탓에 후임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5·18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 키포인트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앞두고

오늘 국회서 긴급 토론회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5·18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주제로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보안사 사진첩과 문서공개로 주도한 대안신당 박지원·장병완·천정배·최경환 국회의원과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

부상자회 등 5·18단체 공동주최로 열린다.

김재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허연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연구실장, 나외갑 광주전남 언론인회 회장, 장신기 박사(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 는 안길정 5·18 기념재단 자문위원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조사위 조사과장을 지낸 염규홍 씨가 참여한다.

나외갑 회장은 '5·18 진상조사의 키포인트와 조사 기법'이라는 주제로 1988년 국회 광주특위와 1994년 검찰수사,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등 과거 조사의

한계점과 향후 구성될 5·18 진상조사위원회 사항에 대해 발제한다. 장신기 박사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재평가 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허연식 연구실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의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최경환 의원은 "39년 동안 숨겨져 왔던 5·18 관련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의미와 이로 인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을 공유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무/안/공/항/에서 '우리가족 해외여행' 편하게 떠나요!

동남아

캄보디아

하나팩 AVPF12_A1
캄보디아양코르왓 4일, 5일
599,000원-

나트랑

하나팩 AVPF21_D
나트랑/달랏 4일, 5일, 6일
950,000원-

방콕

하나팩 AVPF01_A
방콕·파타야 5일, 6일
699,000원-

코타키나발루

하나팩 AVPF03_B
코타키나발루 5일, 6일
499,000원-

하노이

하나팩 AVPF10_A
하노이/하롱베이 5일, 6일
1,050,000원-

남태평양/중국/대만

괌

하나팩 AVPF40_A
괌 4일 홀리데이인호텔
840,000원-

대만

하나팩 AVPF01_2
[온선]대만·지우펀·스핀 4일
681,000원-

장가계

하나팩 AVPF01_U/2
장가계 직항 4일, 5일
599,000원-

괌

하나팩 AVPF15_A
라오스 5일, 6일
1,050,000원-

다낭

하나팩 AVPF13_D
다낭·호이안 4일
699,000원-

세부

하나팩 AVPF01_A
세부 5일 일급리조트
544,000원-

보라카이

하나팩 AVPF10_1
보라카이 4일, 5일 일급리조트
649,000원-

치앙마이

하나팩 AVPF01_A
치앙마이/치앙라이 5일, 6일
1,150,000원-

※ 항공사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운항정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Fair Price | 안심결제 캠페인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